

# ‘1년 수익률 40%’... 로봇·뉴노멀 등 섹터펀드 뜬다

특정국가 설정액 8539억 감소  
섹터투자 펀드는 6880억 유입  
4차 산업혁명 후 기대 수익률 ↑

글로벌 투자자들의 펀드에 대한 투자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중국펀드, 베트남펀드 등 지역적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로봇, 인공지능 등 섹터 영역으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섹터 펀드가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28일까지 해외주식형펀드 중 특정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설정액이 8701억원 줄었다. 특히 중국펀드에서만 8190억원의 돈이 빠져나갔다. 반면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해외주식형펀드로는 해당기간 6844억원의 돈이 들어왔다. 에너지섹터 펀드로 3757억원, 정보기술(IT) 섹터로 3147억원이 유입됐다. 해외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지역보다 섹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흐름은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국내의 주식형펀드 연초 이후 설정액 추이〉 (6월29일 기준, 억원)

대유형	소유형	설정액	연초이후
국내주식형	전체	474,019	-89,368
	액티브주식전체	203,693	-14,964
	액티브주식일반	115,068	-7,692
	액티브주식중소형	25,437	-3,289
	액티브주식배당	46,721	-4,256
	액티브주식섹터	4,954	676
	액티브주식테마	11,514	-402
	인덱스주식전체	270,326	-74,404
	인덱스주식코스피200	103,867	-32,774
	인덱스주식KRX300	4,698	-975
해외주식형	인덱스주식섹터	14,614	222
	인덱스주식기타	147,146	-40,877
	전체	197,589	5,273
	국가별전체	85,048	-8,701
	섹터별전체	34,131	6,844

도 똑같이 나타난다. 올해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8조9358억원의 투자금이 빠져나갔다. 모든 유형에서 자금 유출이 이뤄진 가운데 유일하게 자금이 들어온 곳은 액티브 주식섹터(676억원), 인덱스 주식섹터(222억원)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최근 섹터 펀드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추세라고 말한다. 기존 지수, 권역별 투자 대비 섹터 펀드의 수익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이후 특정 테마와 연관된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이같은 트렌드 변화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봤다.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화두가 던져지면서 2015년 이후 관련 테마를 중심으로 테마 펀드 출시가 증가했다”면서 “2020년에는 헬스케어, 초연결, 인공지능, 배터

리, 클린 에너지 등에 투자하는 테마 펀드 출시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주식펀드 내에서 IT와 헬스케어 섹터 펀드는 크게 늘었는데 작년 10월 기준 17.3%였던 IT 비중은 5월 말 20.2%까지 늘었다. 헬스케어는 13.6%에서 16.0%로 2.4%포인트 증가했다.

섹터펀드의 성과도 좋았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픽텟(Pictet)이 운영하는 ‘로보틱스(Robotics) 펀드’는 로봇을 테마로한 펀드로 관련 기술과 산업,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집중 투자한다. 지난 한 해 동안에만 40.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엑스(Global X)가 운영하는 ‘Global X 사물인터넷 상장지수펀드(Internet of Things ETF)’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IT에 투자하는 ETF로 지난해 수익률은 47.5%를 기록했다. 웬만한 선진국 지수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섹터 펀드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졌다. 지난 2017년 설정된 알리안츠의 ‘Allianz Global Artfcl Intlgc’는 설정된 지 3년 만에 28억6500만달러(약 3조

4360억원)규모의 대형 펀드가 됐다. 인공지능(AI)에 투자하는 펀드 1개의 규모가 국내 인덱스 펀드 규모의 14%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섹터 펀드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초점을 둔 펀드 출시가 증가했는데 5세대 이동통신(5G), 물류, 콘텐츠 등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섹터 펀드에 대한 투자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호정 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뉴노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테마펀드로의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다만, 투자자는 테마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펀드의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테마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 범위가 좁기 때문에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 테마펀드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투자하는 위성펀드로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新외감법으로 감사보고서 정정 14% 감소

### 2019년 중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상장사 감사보고서는 36% 줄어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43% 최다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횟수가 줄었다. 신(新)외감법(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회사와 감사인 모두 결산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중 외감회사 전체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1319회로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 정정횟수는 지난 2016년 969회에서 2017년 1230회, 2018년 1533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사보고서 정정은 1101회로 전년보다 12.3%, 연결감사보고서 정정은 218회로 전년보다 21.6% 줄었다.

상장사의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242회로 전년 대비 36.3%나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횟수는 49회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고, 코스닥상장사의 정정횟수는

〈외부감사대상회사(연결)감사보고서 정정 횟수〉 (단위: 회, %)

구분	2017	2018	2019	전년대비
감사보고서	988	1,255	1,101	△154(△12.3)
연결 감사보고서	242	278	218	△60(△21.6)
합계	1,230	1,533	1,319	△214(△14.0)

186회로 전년 대비 11.8%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사 및 감사인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 신중을 기해 정정 횟수와 회사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회사는 총 1054개사로 전년 대비 5% 줄었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의 3.2% 수준이다.

감사보고서(연결 포함)를 정정한 상장사는 총 107개사로 전년 대비 22.5% 감소했다. 전체 상장사의 4.6%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가 각각 24개사, 77개사, 6개사로 집계됐다. 107개사 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인인 회사는 36개사로 33.6%를 차지했다. 상장회사 외부감사 관련 4대 회계

법인이 차지하는 점유율 42.8%를 밑돌았다.

감사보고서 정정 중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697회로 전체의 52.9%에 해당했다. 1개월~6개월 이내 정정은 230회(17.4%)로 6개월 이내의 정정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상 오탈자, 경미한 금액 오류 등 사소한 오류를 공시 후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정정해 정정 경과기간이 짧아졌다”고 분석했다.

정정사항별로는 재무제표 본문 정정이 43%(567회)로 가장 많았고 ▲주식 정정 30.2%(399회)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0.6%(140회) ▲외부감사 실시내용 정정 8.9%(117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의무보유 주식 1억4996만주 이달중 해제

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1억4996만주가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란 최대주주 및 인수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7월중 의무보유예수 해제는 유가증권시장 150만주(2개사), 코스닥시장 1억4846만주(23개사)며 총 25개사다.

7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은 전월(1억1751만주) 대비 27.6%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4억4462만주) 대비 66.4% 감소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미래에셋대우, 비대면 방식 사회공헌활동

### ‘힘내요 우리’ 밀알콘서트 후원

미래에셋대우는 코로나19로 대면 방식의 사회공헌이 어려워진 만큼 언택트(비대면) 방식의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지난 25일 취약 계층의 고용 위기에 놓인 장애인을 돕기 위한 17회 ‘힘내요 우리’ 밀알콘서트(사진)를 임직원 기부를 통해 후원했다. 기부에 참여한 임직원에게 온라인 콘서트 URL을 제공함으로써 뜻



깊은 문화생활을 함께 즐겼다. 이번 후원금은 밀알복지재단 기빙플러스 매장의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다문화 근로자 등 고용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태화 기자 atvin@

## 대신證 ‘4way 미국주식 예약주문 서비스’

### 특정일 등 다양한 조건 사전주문

대신증권이 미국주식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예약주문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특정일, 특정 기간, 지정수량, 미체결된 수량 등 다양한 조건으로 미국주식을 사전에 주문 넣을 수 있는 ‘4way 미국주식 예약주문 서비스’

를 내놓았다.

‘4way 미국주식 예약주문 서비스’는 한국과 상이한 미국 개장 시간을 고려해 고객 편의를 높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이 서비스는 특정일 하루만 예약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미체결된 물량, 지정수량, 총수량의 균등 분할로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특정일 1일 예약주문’은 당일을 제

외한 특정 일자 예약주문이다. ‘기간예약 잔량주문’은 지정가로 주문을 넣으면 미체결된 물량에 대해 특정기간 동안 예약주문이 들어간다. ‘기간예약 지정수량 주문’은 특정 기간에 지정가로 지정한 수량이 자동으로 예약 주문된다. ‘기간예약 지정수량 slice주문’은 주문한 총 수량을 특정 기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해 예약주문이 들어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와 해외주식데스크를 통해 예약 주문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 청년층 대상 年 5% 적립식 특판 RP 출시

### 신한금융, 오늘부터 선착순 2020명

신한금융투자가 청년층(만 18세~40세)을 대상으로 연 5%의 우대수익률을 주는 ‘힘내시5 적립식 특판RP’를 출시한다.

‘힘내시5 적립식 특판RP’는 7월 1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선착순 2020명까지 신규 및 기존고객 모두 가입 가능하

며 연령 외에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연 5% 수익률로 월간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6개월간인 당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6개월 이내에 해지시 예치 기간만큼 CMA-RP 수익률(30일 기준 0.25%, 변동 가능)을 제공하며 가입은 신한금융투자 지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박미경 기자